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4호 (2026.04.24)

■ 이 슈

(국제)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과
인천시 대응 현황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Cotents

I. 이슈

(국제)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과 인천시 대응 현황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금융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 추진 11

(경제) 정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11

(경제) 5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통합 '4월 동행축제' 진행 12

(경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12

(경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유가 대응을 위해 '반값 모두의 카드' 시행 13

(산업) 정부, 특별법 시행령 의결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가속화 13

(산업) 글로벌 신약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발표 14

(산업) 과기부,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사업' 공고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국제 >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과 인천시 대응 현황¹⁾



#지정학 분쟁 #미-이란 #석유 #공급망 #경제·산업

- 2026년 2월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참전함에 따라 △원유 생산·공급 감소 △수출입 물류 차질 △지정학적 분쟁 확대·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인천시 경제·산업 전반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중
 -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중과 해상을 통한 대규모 이란 공습 작전을 개시하며 전면전에 돌입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복합 위기가 발생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기능 정지’를 목표로 이란의 주요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이후, 이란은 드론을 활용하여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²⁾을 차단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인질로 미국을 압박
 - 이란 내 주요 산업 기반 시설 폭파에 따라 향후 석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사일·드론 등으로 인한 위험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중동 지역의 주요 공항·항만시설이 폐쇄되어 반도체·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화물 및 주요 원·부자재 흐름에도 악영향
 - 미국-이란 전쟁이 단시일 내에 휴전 또는 종전에 이르게 된다고 해도 이란 및 여타 중동 국가들의 산업시설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여파에 장기간 노출될 전망
 - 인천시는 나프타³⁾를 주요 원료로 활용하는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 원·부자재에 의존하는 제조업의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번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상황
 -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생활물가 및 주요 수입품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관리를 진행하는 등 금번 전쟁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 이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의 진행 양상과 국내 주요 에너지원 및 원자재의 중동 의존도, 전쟁으로 인한 인천시 주요 산업 분야의 영향 경로를 분석하고,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관련한 인천 경제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

1) 금번 호의 이슈는 2026년 4월 16일(목)까지 확인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발간 시점까지의 기간 차이로 인하여 일부 현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지역의 핵심 항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6%, LNG의 약 23%가 지나가는 핵심 수송로이며, 2026년 3월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에는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약 10% 수준인 약 340만 TEU의 선박이 투입. KBS뉴스(2026.03.03.) 및 연합인포맥스(2026.03.04.) 참고.

3) 나프타(Naphtha)란 특정 범위(30℃ ~ 200℃)에서 끓는 석유나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에서 얻어지는 가연성 액체 탄화수소들을 포함한 혼합물로, 석유의 액체 탄화수소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휘발성이 강한 성분들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용어. 이를 활용하여 합성수지·합성 섬유·합성고무 등을 제조할 수 있으며, 메탄올 합성·아세트산 합성·염화비닐 제조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

-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미국의 참전과 함께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이란 전쟁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분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전쟁 조기 종식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완전한 종(휴)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은 당사국 간의 갈등이 촉발한 전쟁이라기보다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미국이 참전하며 전쟁의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파악
 - **(2023년 10월)** 이란의 대리 세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Hamas)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Gaza) 전쟁이 발생한 이후, 이스라엘은 시리아-레바논 등 이란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들에서 친이란 세력과 이란군 지도부를 집중적으로 제거하기 시작
 - **(2024년 4월)** 이란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드론-미사일을 직접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응하며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공개전 단계로 진입
 - **(2025년 1월~5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임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되었고, 직후인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12일간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미국-이란으로 확대
 - **(2026년 2월)** 2025년 6월 말 휴전⁴⁾에 들어갔던 미국-이란의 전쟁은 2025년 말부터 계속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지원'이라는 명목과 더불어 202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핵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⁵⁾하며 전면전에 돌입
 - 2월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였으며, 이란은 공격에 따른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내 미군기지가 있는 7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분쟁의 범위가 중동 전역으로 확대
 -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기뢰 부설 선박 및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저장시설·석유화학 단지·원자력 발전소 등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진행함에 따라, 이란도 주변 친미국가 및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행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시행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유가 및 물류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자 국제사회와 주변 중동 국가들이 전쟁의 종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휴(중)전과 관련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가 크고⁶⁾ 이스라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완전한 종(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2026년 4월)**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상호 의견을 조정할 시간을 갖는 2주 간의 휴전⁷⁾에 합의하며 잠시 긴장이 완화되는 듯 했으나, 직후인 4월 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함⁸⁾에 따라 미국-이란의 휴전이 흔들리고 있으며 4월 14일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역봉쇄)하며 대치 중인 상황

4) 경기일보(2025.06.24.).

5) 일명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무력화를 목적.

6)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 포기(우라늄 농축 금지, 현재 보유분 폐기) △전쟁 배상금 지급 불가 △이란 불가침 및 기타 저항의 축 세력 관련은 협상 대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은 전력 생산 등 민간 용도로 활용되어 전면 포기 불가(농축 권리 인정) △모든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전쟁배상금 대체 △제재 해제·불가침 보장 등을 주장.

7) 이란이 제시한 10개 평화안은 ①재공격 방지 공식 보장 ②전쟁의 영구적 종식 선언 ③레바논 내 군사 작전 종료 ④대이란 제재 전면 해제 ⑤역내 동맹 세력 보호(예멘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에 대한 공격 중지 및 자치권 인정) ⑥호르무즈 해협의 즉각 개방 ⑦상업용 선박 통행료 부과 ⑧오만과의 공동 관리 및 수익 분배 ⑨이란 주도의 독자적 항행 규정 ⑩통행료 수익을 통한 전투 재건(통행료의 전쟁 배상금 대체) 등 정치·군사적 독자성 보호 및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배상 조건을 포함.

8) 휴전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레바논을 공습한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평가)은 부정적.

-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항공·해양 항로를 활용한 물류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중동산 석유를 이용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항로를 통해 원·부자재를 운반하거나, 수출 물류를 송출하는 전력,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건설 등 국내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될 전망
 - (에너지) 이란 내 기반시설 파괴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하여 국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원유 및 LNG 등 에너지원 수입으로,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발 원유 의존도는 69.1%⁹⁾, LNG 의존도는 약 19.5% 수준
 - 전쟁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LNG의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발전용 원료의 대체제인 석탄 가격 역시 동반 상승세¹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력 비용 상승압력으로 작용
 - 원유·LNG 공급에 차질 발생 시 △원유를 직접 활용하는 석유화학 산업¹¹⁾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품을 부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전방산업¹²⁾ △제품 생산 시 대규모 전력을 활용하는 반도체·철강 등 산업 등 전방위적인 영향 발생¹³⁾
 - (물류)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동 일대의 영공이 폐쇄되고, 작년 10월 가자지구 휴전으로 올해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에즈 운하와 홍해 항로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산업의 원·부자재 수입 및 생산품 수출 물류에 위협으로 작용
 - 반도체 분야의 헬륨, 철강산업의 철강, 바이오산업의 원료의약품(API)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원·부자재 수입이 지연되고, 관련 운임 및 보험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제조사의 최종 생산재 역시 가격 인상 압력에 직면
 - 카타르 도하공항,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 등 중동의 주요 물류 거점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중지됨에 따라 항공 운송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반도체·스마트폰·항공기 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물류 운임 상승 압박 및 수출 차질이 발생
 - (환율)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고유가가 원·달러 환율에 지속적인 상승압력을 주는 중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 상승 및 투자심리 약화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2026.04.15.)에 따르면 2026년 3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6.1% 상승하며, 2025년 7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물가 상승을 자극
 -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지속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전 선호 심리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관망 및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화되며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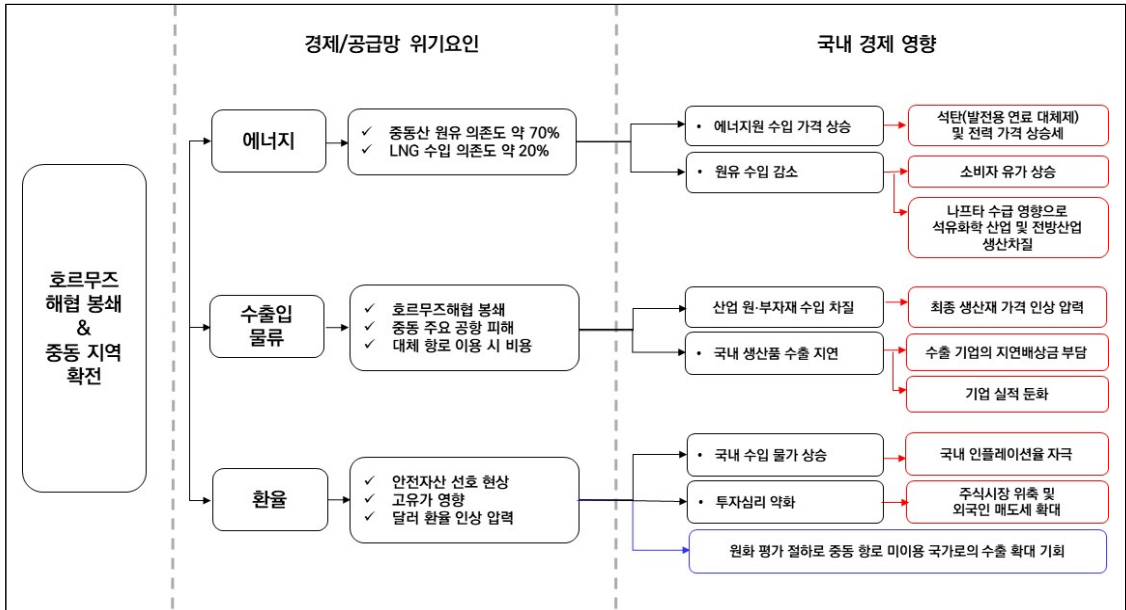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6.0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동발 원유 수입 비중은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70% 내외의 높은 수준으로, 중동산 원유는 △지리적 근접성 △저렴한 가격 △국내 고도화 정유 설비와의 적합성 등 타 산유국의 원유에 비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보유했다.

10) 매일경제(2026.03.07.)

11)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산 중질유(황 함량이 높고 무거운 특징)를 이용해 고급 항공유·나프타·경유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특화되어 있어 단기간에 수입처를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

12) 원유에서 생산할 수 있는 나프타는 각종 플라스틱, 고무, 비닐 등 원·부자재를 제조하는데 사용되어 제조업 전반에 영향.

13) 산업연구원(2026.03.19.)에 따르면 원유·LNG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영향은 '석탄 및 석유제품'과 '전력·가스' 부문의 충격이 가장 크고, 이후 화학·금속·운송 등으로 연쇄 파급되는 것으로 확인. 특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은 에너지를 직접 투입하는 동시에 에너지 집약 공정을 운영하여 가격 충격에 이종으로 노출.



* 주 : 영향 경로의 붉은 상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푸른 상자는 긍정적인 영향을 작성

[그림 1]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경로

[표 1] 국내유가 10% 상승 시, 주요 제조업이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산업 구분	생산비 증가분
제조업 전체	0.71
음식료품	0.1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0.46
석유제품	6.30
화학제품	1.59
철강	0.08
반도체	0.05
일반기계	0.12
자동차	0.14
기타 운송장비	0.20
기타 제조 제품	0.19

* 자료 : 산업연구원(2026.03.16.) 참고 및 제작성

○ 중앙정부에서는 ‘비상대응본부¹⁴⁾’를 가동하고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물가 안정화 △주요 품목 수급 관리 △대외협력 방안 마련 △피해기업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및 산업계 피해 대응을 위해 노력 중

- 정부는 2026년 3월 1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¹⁵⁾ 합동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응반¹⁶⁾’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14) 2026년 3월 26일 정부는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기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비상대응반’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발표(국무조정실, 2026.03.25.).

15)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참석.

16)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에너지·수출·해운·항공·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징후 발생 시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동 상황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

- 산업부는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와 더불어 반도체 측정·검사기기, 브롬·헬륨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제품군에 대해 국내 제고 활용 등을 통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해양경찰청은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접 국가와의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
- 행안부와 국세청은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원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한을 3~6개월 연장하고, 관세청은 나프타 등 주요 품목 수입 통관절차의 신속 진행을 추진
- 재경부와 조달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자재 가격 계약금액 반영 △원자재 수급난 시 납품기한 연장 △입찰보증금 면제(각서 대체) 등을 추진

[표 2] 정부의 중동전쟁 피해기업 주요 지원 사항

구분	지원 사항
긴급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중동 상황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총 13조 3,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자금지원, 금리감면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발표¹⁷⁾ • (KOTRA) 중동 수출(계약) 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항목을 신설한 긴급 수출바우처 공고 • (무역보험공사)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제작자금 보증 한도 확대 △보증 만기 연장 △보험금 가지급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기업의 유동성 부담 완화 추진 • (중기부) ①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한도를 확대한 '긴급 물류바우처'¹⁸⁾ 신설 ②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의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 추진 ③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 원)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해 유동성 공급 • (국토부) 중동전쟁으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특별용자 시행 및 보증수수료 할인 제공
물가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하여 산업 및 민생과 관련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모니터링 실시 •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석유 가격 안정화에 총력
주요 품목 수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및 비유 상향 △요소수 액화천연가스 수급 모니터링 △나프타 수출 제한 △나프타·에틸렌·프로필렌·벤젠·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적 금지 △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건설자재 수급 상황 관리 등을 통해 물가 및 주요 품목 수급 관리
대외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사 타진 • (사우디·오만·카자흐스탄) 원유·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
상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피해기업 상담센터), 중소벤처기업부(중동상황 피해·애로 접수 창구), 산업통상부(KOTRA 중동 사태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등이 중동 피해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개별 상담센터를 운영 중

* 자료 : 정부 부처 보도자료 참고 및 재작성

17) 2026년 4월 7일 기준, 수출입은행이 합류하여 중동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총 24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도 동반 시행 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07.).

18) 중동 지역에 수출(계약)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3.06.). 지난 4월 15일, 중동전쟁 장기화 및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일반/물류전용)'을 추가 시행(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15.).

- 인천시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대응을 위해 민생 피해 분야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수행 중으로, 중동 지역 전쟁의 불확실성·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관내 중소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
 - 인천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역 경제·산업의 피해 대응을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TF’¹⁹⁾를 가동 중이며, 금번 전쟁으로 인한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해 총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²⁰⁾을 마련
 - 인천시 관내 중소기업은 △수출 보류 △계약·결제 지연 △해상 운송비 증가 △수입 원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 운전자금 부담 및 채산성 악화에 노출²¹⁾
 -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TF’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 물가·유가·수출입 기업 피해 등 지역경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
 -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민생·기업 지원책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중동 지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물론 향후 추가적인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차원의 지역산업 공급망 구축 및 중소기업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의 마련이 요구
 -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중동 지역을 경유하는 주요 물류 거점의 경우 과거부터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념 충돌 등으로 인한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인천시는 전쟁의 향방 및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 기업의 △원·부자재(석유 포함) 수입처 점검 및 다변화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 지원 △석유화학 기반 원·부자재 대상 대체품 개발지원 등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경감하고 지역 기업·산업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필요

[표 3] 인천시 중동 피해 관련 주요 대응 상황

구분	지원 사항
민생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물가 모니터링 인천시 군·구 홈페이지 게시 및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협조 요청 • 인천시 연근해 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총 14억 7,300만 원) • 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지원율 및 상한액 인상 등) 지침 개정(4.3) •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 마련 및 심의 진행(4월 중)
석유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판매업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5.12)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 에너지절약 거리캠페인 추진(4.8~4.29)
수출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경영안정자금(총 500억 원 규모, 3.26~) 및 해외 물류비(100개 사, 100만 원 한도, 3.24~)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계획 수립 및 중동상황 피해업체 해외판로 개척 지원 확대 추진
대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의) 기업 애로 접수 데스크 운영(42개 사 접수, 3.17~) 및 인천기업 피해 실태 등 조사 추진(4월 중)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4월 3일 기준 3,981건) • ‘중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²²⁾ 개최(4.21)

* 자료 : 인천시 보도자료,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TF 회의자료 등 참고 및 재작성

- 19) 2025년 3월 11일 발족 후 매주 회의를 개최 중으로, 4차 회의(2026.04.01.)에서 △민생물가안정반 △석유가격안정화반 △수출입지원반 △대외협력반 △취약계층지원반 등 5개 반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4월 8일 기준 6차 회의를 진행.
- 20)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 관련 주요 사업은 △인천e음 캐시백 비율·사용 한도 확대 △관내 모든 주유소 인천e음 적용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추가 지급 △노후 택시 폐차 지원대상 확대·화물차 유가보조금 증액 △1년치 농어업인 수당 일시 지급(5월 중) 등.
- 21) 4월 8일 기준 인천시는 중동상황 피해·애로 접수 창구를 통해 총 92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
- 22) 인천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내 기업 지원기관에서 수행 중인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활용 방안을 안내.

제조 >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 2026년 3월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은 의약품 및 화장품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한 바이오산업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²³⁾
 - 화장품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7.0% 증가한 1,193백만 달러로, 월별 수출액이 다소 등락을 보이거나 전반적인 추세는 꾸준한 증가세
 - '26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6% 증가한 3,135백만 달러로, 중소 뷰티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OEM·ODM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
 - 바이오헬스 부문은 미국, EU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주력 품목의 처방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수출 역시 5개월 연속 플러스 실적 기록
 -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한 1,49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지속
 - 의약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 전월대비 3.7% 증가한 954백만 달러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주요국의 꾸준한 수요가 수출액 확대의 요인
 - 다만 최근 미국이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함과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²⁴⁾

[표 1]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25.08	'25.09	'25.10	'25.11	'25.12	'26.01	'26.02	'26.03
화장품 (증감률)	863 (4.8)	1,147 (25.8)	917 (-11.3)	946 (4.2)	1,065 (21.8)	1,025 (36.1)	917 (3.5)	1,193 (27.0)
바이오헬스 (증감률)	1,128 (-11.8)	1,668 (34.9)	1,154 (-6.6)	1,441 (0.2)	1,569 (23.8)	1,321 (16.1)	1,310 (7.1)	1,497 (6.3)
의약품 (증감률)	770 (-10.9)	1,106 (37.4)	759 (-3.4)	961 (0.0)	956 (28.1)	913 (15.8)	920 (16.9)	954 (2.0)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6.04.01)'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3)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6.04.01.)' 참고.

24) 전자신문(2026.04.06.) 및 위키리크스한국(2026.03.10.) 참고.

- **(전국)**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바이오산업 전체 수출액은 2025년 11월 이후 증가세
 - **(생산지수)** 2026년 2월 전국 바이오산업 생산 경기는 부문별로 차이가 나타나나,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비 감소하며 약보합세
 -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0.4%,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한 84.0으로, 부진한 경기가 지속
 -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9.7%,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137.1로, 생산지수는 기준치(100) 이상 수준이 지속되나 경기 호조세는 다소 약화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3월 바이오산업 수출 총액²⁵⁾은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한 214.9천만 달러 수준으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월비 증가
 - 바이오산업의 총수출액은 2025년 11월부터 연속 5개월 전년동월비 증가하며 완만한 상승세
 -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26.9%, 63.6%, 2.0% 증가하며 수출액 증가세에 기여하였으며, 의약품 수출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이후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나 2025년 11월 이후 안정세

- **(인천)**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생산 호조세는 약화되었으나, 수출액은 완만한 증가세 지속
 - **(생산지수)** 2026년 2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한 116.9,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한 243.1을 기록하며, 생산 경기가 기준치(100)를 웃도는 선에서 다소 하향
 - **(품목별 수출액)** '26년 3월 인천시 바이오산업의 총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2025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9.8%, 전월대비 52.8% 증가하며, 지난 2월의 급격한 수출액 감소분을 회복
 - 기타 화장품 및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09.6%, 6.9% 증가하는 등 2026년 들어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 변동 폭은 감소

[표 2]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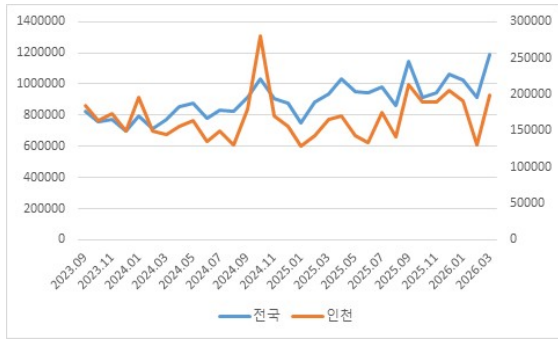
지역	항목	'25.11	'25.12	'26.01 (p)	'26.02 (p)	'25.02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화학물질 등 제조업	84.2	92.3	93.8	84.0	85.9	-10.4	-2.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77.7	82.9	83.6	73.6	79.5	-12.0	-7.4
	의약품 제조업	156.5	173.4	151.8	137.1	148.7	-9.7	-7.8
인천	화학물질 등 제조업	126.2	126.3	129.5	116.9	120.1	-9.7	-2.7
	의약품 제조업	280.2	346.1	260.4	243.1	270.2	-6.6	-10.0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C20)'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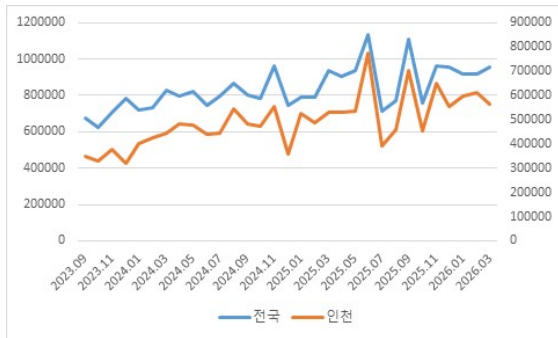
25) 화장품(MTI2273), 기타 화장품(MTI2279), 의약품(MTI2262)의 수출액을 더한 합계값을 의미.



[화장품(MT12273)]



[기타 화장품(MT12279)]



[의약품(MT1226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2026.03)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6.03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33,348	25.5	356,547	96.8	223,199	19,483	-10.4	18,939	1.2	-544
자동차	17,230	0.5	80,255	-0.8	63,025	1,294	28.4	8,315	12.8	7,021
기계장비	81,888	18.0	127,040	71.2	45,151	3,625	-42.1	4,904	-3.4	1,279
바이오-의약	9,922	25.9	7,873	2.7	-2,049	773	-33.3	5,631	6.8	4,858
바이오-화장품	1,982	6.7	11,520	26.3	9,538	35	20.0	1,931	19.8	1,89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경제 > 금융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

- 정부와 금융권이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액을 2배로 확대하고, 대출 상품 4종의 신설·확대를 추진

구분	주요 내용
미소금융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총공급 규모 (향후 3년 내, 3,000→6,000억 원) 및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 비중(10%→50%) 확대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 활용·관리 방안 수립, 달성을 정기 공시
자활지원· 시범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별 노하우와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재단별 보유재원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 활용 보장 우수 지원 사례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검토, 지원사업 아이디어 발굴·확산 채널 마련
맞춤 대출 4종 출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이력 부족 미취업·취업초기 청년 대상 '청년 미래이음 대출' 출시 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한도 확대(2,000→3,000만 원) 및 거치기간 연장(2→3년)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대상 지자체 이자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의 추가 금리지원 제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연 4.5% 금리, 최대 500만 원)' 신설
금융권 포용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금융지주, 서민금융 공급 규모 7조 2,000억 원으로 확대(現 6조 5,000억 원) 긴급생활비 대출,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3,000억 원 규모 유동성 추가 공급 우리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재원 확대, 징검다리론 금리우대, 비대면 채무조정 등 추진

경제 > 정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관계부처합동

-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리 대상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1.5% 이하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
 -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하는 한편,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정책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개인·법인 등)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여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출회를 유도할 계획
 - 사업자대출의 용도와 유용, 가계대출 약정 위반 등 대출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LTV 규제 및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의한 온투업권의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
 - 금융위는 금번 방안에 포함된 온투업권 규제는 즉각 시행, 다주택자 만기 연장 제한은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은 점검준칙을 개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4월 동행축제'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 중
 - 금번 동행축제는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동행축제 50 투어',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 영수증 인증 이벤트 등 여행과 소비를 결합한 체험형 행사를 확대하여 운영
 -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상향하여 운영하며, 등 9개 카드사*를 통해 백년가게·전통시장·온누리 가맹점 결제 시 10% 청구할인을 제공
 - * KB국민, NH농협, BC,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 지역축제 판매전과 가까운 동네 소상공인 매장을 방문해 영수증이나 인증샷을 제출하는 '지역축제 1만원 챌린지'와 '세븐일레븐 동행도시락' 구매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페이백 이벤트도 동시 진행
 - 온라인에서는 카카오, 지마켓, 컬리 등 93개 플랫폼에서 뷰티·패션·식품 등을 10~40%(네이버는 최대 70%) 할인 판매하고, TV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에서는 우수제품 할인판매 및 경품 증정 등 프로모션을 진행
 - 오프라인에서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백화점 등 107개 유통채널에서 최대 60% 할인, 의류·주방용품은 최대 90%까지 할인판매하며,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에서도 최대 80% 할인을 제공
 - 동행축제의 판매상품, 할인정보, 지역축제,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shoppingfesta.org)와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 금번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원하고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 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하며,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20~25만 원을 지급
 -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이 대상인 1차(4/27~5.8)와 그 외 국민이 대상인 2차(5/18~7/3) 기간에 맞춰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 KB국민, NH농협, BC,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카드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포함
 -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31일(월)까지 전액 사용 필요

#국토교통부

○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한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

-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금번 혜택 확대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지원할 예정

•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

* 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를 의미

• 정액제 반값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3만 원	5만 원	2.5만 원	4.5만 원	2.2만 원	4만 원
일반 지방권	2.7만 원	4.7만 원	2.3만 원	4.2만 원	2만 원	3.7만 원
우대지원지역	2.5만 원	4.5만 원	2.1만 원	4만 원	1.7만 원	3.5만 원
특별지원지역	2.2만 원	4.2만 원	2만 원	3.7만 원	1.5만 원	3.2만 원

#산업통상부

○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

- 동 시행령은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인허가 특례 △환경기준 특례 △공정거래법 특례 △기타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

구분	주요 내용
인허가 등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과정 중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 완료 이전 '석유수출입업' 등록 신청 가능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간주
환경기준 초과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 유예 • 법인 분할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변경 필요시, 불가피한 경우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 적용
공정거래법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제출 서류·정부 승인절차와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 요령 및 준수사항 설정
기타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의 우선지원 대상 추천 및 고용부의 선제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

- 금번 방안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신약 창출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육성할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스케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BD 지원) 양 부처의 R&D-사업화자금을 매칭-연계하여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풍부한 자금 지원 • (기술 평가-보증) 제약벤처의 단기유동성 애로 완화를 위해 기술평가 기반 맞춤형 보증 공급 • (펀드) 중기부-복지부 펀드 연계 강화로 제약바이오 정책펀드의 단계별 지속 체계 마련
스피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국내 제약벤처-글로벌 빅파마 간 오픈이노베이션 전 단계(협업탐색~기술거래 계약) 지원체계 구축 • (국내) 양 부처의 지원사업-인프라 결합을 통한 제약바이오벤처-제약사·SI 벤처 간 협업 유인 강화
레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데이터 등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및 지역 유망기업을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와 연결 • 개선 수요가 높은 규제를 공동 발굴-개선하고, 주요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기반 강화 협업 추진
시너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벤처-제약사 시 기반 공동 R&D',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사업' 등 공동 사업 기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사업'의 공고가 5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

- 금번 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추진
 -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학·출연연·기업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은 의무적으로 박사급 연구인력 2인 이상을 채용할 필요
 -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1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와 연구성과 사업화 단계(기술이전·실증·인증 등)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컨소시엄당 최대 5억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031년까지 총 52개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할 계획
 - 또한 연구성과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모든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산·학·연 원팀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 자료

- KBS뉴스, “호르무즈 해협 볼모 잡은 이란…국내 에너지·물류 산업 직격탄 우려”, 2026.03.03.
- 연합 인포맥스, “호르무즈 봉쇄로 해운 운임 3배 상승·물동량 80% 감소”, 2026.03.04.
- 경기일보,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2025.06.24.
- 인사이드, “극적 휴전 하루 만에...‘이스라엘 공습’에 다시 막힌 호르무즈 해협”, 2026.04.09.
- 중앙일보, ““20년 농축 포기 vs 한 자릿수…미국·이란 ‘노딜’ 결정적 이유””, 2026.04.14.
- 한겨레, ““이스라엘과 단절” 유럽 106만명 분노의 서명...레바논 폭격 후폭풍”, 2026.04.15.
- 산업연구원,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I-KIET 산업경제이슈, 2026.03.1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호르무즈 해협 해상운송 봉쇄에 따른 영향과 대응」, KMI 동향분석, 2026.03.0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 배경과 과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6.04.01.
- 전기신문, “[美-이란 전쟁] 위기 속 빛난 수입선 다변화...LNG 시장서 민간 직수입사 역할 ↑”, 2026.03.09.
- 민간LNG산업협회, “‘25년 LNG 직수입 실적 보고서””, 2026.02.04.
- 매일경제, “글로벌 비료·석탄 가격도 급등...식량·에너지 ‘이중위기’ 덮치나”, 2026.03.07.
- 산업연구원,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i-KIET 산업경제이슈, 2026.03.19.
- 한국은행,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2026.04.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에 국가 역량 결집...정부, ‘비상경제본부’ 가동”, 국무조정실, 2026.03.25.
- 재정경제부,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2026.03.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전쟁 여파에 공공계약 참여 기업 부담 완화...계약금액 조정·납품 연장 등”, 재정경제부·조달청, 2026.04.10.
- 금융위원회,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 2026.03.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 중동피해 기업에 신규 정책금융 26.8조로 확대”, 금융위원회, 2026.04.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가동...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돌입”, 산업통상부, 2026.03.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경청, 호르무즈 해협 상황 점검...우리 선박 안전 대응체계 강화”, 해양경찰청, 2026.03.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중동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산업통상부, 2026.03.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산업통상부, 2026.03.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2026.03.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기부,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중동상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6.03.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발 물류비 급등 대응...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 원 긴급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2026.04.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5500억 원 공급...긴급자금 수출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026.04.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설업계에 보증·융자 등 금융패키지 시행...중동상황 대응 지원”, 국토교통부, 2026.04.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중동발 물가 관리에 총력...‘중동전쟁 물가대응팀’ 신설”, 재정경제부, 2026.03.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산업통상부, 2026.03.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5일부터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관세청, 2026.04.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급상황 관리..."애로사항 신속 개선"", 국토교통부, 2026.04.03.
-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동 상황'대응 비상경제 TF 가동", 2026.03.11.
-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동 수출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투입", 2026.03.22.
- 인천광역시, "인천시,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2026.03.25.
- 인천광역시, "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폭 확대, 유가 급등 대응 총력", 2026.04.06.
- 인천광역시, 「중동상황 대응 인천시 비상경제TF 회의 (6차)」, 2026.04.08.
-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동 전쟁 發 민생위기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으로 돌파", 2026.04.14.
-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동 리스크 대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2026.04.19.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뷰티경제, "K-뷰티, '역대급 1분기 수출 실적' 예상...엇갈린 온도차", 2026.03.30.
- 전자신문, "정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 폭탄'에 K-바이오 긴급 점검", 2026.04.06.
- 위키리크스한국, "이란 전쟁에...K제약바이오 수출·원료 수급 '이중고'", 2026.03.10.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취약계층·지방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미소금융 2배 확대", 금융위원회, 2026.03.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담보대출 연장 제한...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로 강화", 관계부처합동, 2026.04.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대 90% 할인...전국 소비 축제 '동행축제' 이달 11일 개막", 중소벤처기업부, 2026.04.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2026.04.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국토교통부, 2026.04.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구조개편 가속화 지원", 산업통상부, 2026.04.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매출 10억 달러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2026.03.24.
-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2026.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I·반도체 박사급 인재-기업 잇는 산·학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4.08.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4호(2026.04.24)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6년 04월 24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